

아버지와 나 시리즈 10 - 교회, 세상의 소망

<차례>

- Chapter 1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입니다.
Chapter 2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입니다.
Chapter 3 :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Chapter 4 : 교회의 기초는 진리 되신 예수그리스도 이십니다.

♣ '아버지와 나' 시리즈를 발간하며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비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12가지 주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성령님 - 살리시는 영
예수님 - 구원의 이름
사탄의 영적전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기도 - 우리의 살 길
교회 - 세상의 소망
리더십 -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예배 - 설레이는 만남
선교 - 존재이유
사역 - 인생의 행복
성경 - 내 길의 빛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나의 동역자요, 동지요, 친구입니다.
나의 꿈, 그대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교회 - 세상의 소망

사람은 자신을 기다려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종을 눈 앞에 둔 어머니는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생사와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숨을 이어갑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군인은 포로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해도 그의 정신과 육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삶의 투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년 수 백명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내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또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나는 당신이 떠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일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땅 끝까지 가서라도 당신을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 내일은 더 이상 어두운 터널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갈 이유를 찾는 이들에게 “나는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과도 같습니다. 칠홍 같은 어둠과 폭풍 가운데 난파한 배를 가족이 기다리는 안전한 포구로 인도해 주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의 소망, 교회입니다.

☞ Chapter 1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사귀를 내밀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를 닮아 가며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 밖에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Calvin. Inst. IV.1)

♣ 말씀읽기 1

에베소서 1:20~23, 4:15~16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각 지체가 자라야 할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무엇 안에서 자라게 됩니까?

☞ 묵상하기 2

위 본문을 통해 나타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눔시다

-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느끼고,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 팔이나 다리가 다쳐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당신은 어떤 불편함을 겪었었죠? 그리고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한 몸으로써 교회의 다친 부위는 어디일까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 격언 -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예수님의 입이요, 손이요, 귀요, 눈이요, 지체들입니다.

성도의 입 -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를 가르치며, 위로와 격려와 권면하는 입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의 귀 -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며, 형제 자매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 그 귀는 사랑의 귀가 됩니다.

성도의 손 - 하나님께 순종의 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손은 달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도의 지체들 - 성도의 모든 지체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이므로, 모든 지체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가 되기 위하여, 훈련되고 개발되어야 합니다.

※ 기차 철로에서

당신의 눈이 당신의 몸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이 철로 위로 걸어 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철로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신의 귀가 몸에게 이야기 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소리가 저에게 들리는데요?”

당신의 눈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걸읍시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눈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자 당신의 귀가 말합니다. “기적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때 당신의 다리가 말합니다. “나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철로 바깥으로 내려 보냅시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 간에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툼다면, 우리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 말씀읽기 2

고린도전서 12장 12~31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들에게도 함께 고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눔시다

-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써 당신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한 몸으로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몸으로서 삶의 어느 부분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까?
- 다른 지체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나는 예수님의 몸 된 지체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 참고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구약성경이 이스라엘의 모임을 말할 때, ‘카할’이라는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곧 선민 이스라엘 총회의 구성원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총회는 혈연적 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종교적 공동체를 가리키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로 사용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에클레시아’가 백성의 통치기구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민회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은 모든 아테네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민회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소집시키는 나팔수에 의해서 모여졌습

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오라는 초청을 수락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도 하나님의 초청을 수락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뽑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일반 대중들 가운데서 주님께로 부름 받고 나와서 그 분을 주님이
 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루었
 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우리가 모인 이 공
 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 우리 순원 기도제목 >

☞ Chapter 2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천국비유 말씀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명의 처녀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의 등과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 말씀읽기

호세아 2장 19~23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고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언약은 무엇입니까?

☞ 묵상하기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고백은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눔시다

- 하나님의 부르심, 청혼에 대한 당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 청혼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 거룩과 순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속함을 받은 새 피조물인 성도들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와 같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에 성도들은 영원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단장된 신부로 성도들은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땅한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결혼식을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또한 순결이란 무엇입니까? 사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향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은 '거룩과 순결'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말씀읽기

에베소서 5장 22~23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 묵상하기 2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 묵상하기 3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적 신부인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눔시다

- 예수님으로 인해, 당신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당신의 삶을 고백해 봅시다.
- 당신은 거룩과 순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할 신부로서, 교회와 직장, 가정에서 결단하고 헌신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신앙의 순결을 지킨 폴리갑

로마시대, A.D. 150년경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이끌던 감독 폴리갑은 로마의 재판에 회부되어 지방 총독의 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한다면 자유롭게 될 수 있소!”

그러나 폴리갑은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겼고, 그 동안 주님은 한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총독은 “당신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소”라고 위협하였습니다.

폴리갑은 “총독이 불붙인 불은 한순간 동안 탈 것이지만, 영원한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

☞ Chapter 3 -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며, 또한 두 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 말씀읽기 1

고린도전서 3:16~17, 6:15~20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 묵상하기 2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눔시다

-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구별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당신의 삶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 “거룩의 의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의 ‘거룩’과 사람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할 때의 ‘거룩’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으시되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룩’이요.

‘사람의 거룩’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은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다든지, 웃으로 거룩함을 치장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않고 의롭다거나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눈물로 회개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 “완전한 교회”

어느 날,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 왔습니다.

“목사님, 제게 가장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찾아다녀 보았으나 다 실망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의 정성은 매우 가혹하나 자네는 끝내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것일세. 설사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자네가 그 교회로 들어가는 날,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변질되고 말 것일세.”

세상 어디에 완전한 사람이 있으며, 완전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남의 부족만 보려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만 일으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거나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온갖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깨지고 다듬어지고 고침 받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 월터 B. 나이트 -

♣ 말씀읽기 2

에베소서 2장 19~22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교회의 터와 모퉁이들은 누구입니까?

☞ 묵상하기 2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눔시다

- 당신은 교회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 가정과 직장,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어느 부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 ‘헛리에의 57센트’

필라델피아 북광가에는 3천여 명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건축되기까지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이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러슬 콘웰 목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귀엽게 생긴 어린 소녀 하나가 교회 마당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콘웰 목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울던 어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늦게 주일 학교에 왔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콘웰 목사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 주고, 달랜 후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이 여자 아이는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이의 베개 밑에서 봉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겉봉에는 ‘주일학교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더 큰 예배당을 짓는데 돕기 위하여’라는 글과 함께 ‘헛리에’라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57센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콘웰 목사는 그 봉투의 내용을 교회에 알리게 되었고, 이에 감동받은 교인들은 힘을 합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이 큰 결실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 우리 순원 기도제목 >

☞ Chapter 4 - 교회의 기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성에 게시된,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와 전통을 성경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놓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희석시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교회에 대항하여, 루터와 쾰링거, 칼빈 등의 개혁자들을 통해 일어난 종교개혁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만), sola gratia (오직 은혜로만),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만)를 외쳤는데, 이것은 “오직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과 교회의 기초를 회복케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구사회는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게 되었고, 부패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롭게 서게 되었습니다.

♣ 말씀읽기 1

마태복음 16장 15~19절과 고린도전서 3장 5~15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 속에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묵상하기 2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닦아 놓은 터’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눔시다

- 당신은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만카의 성 이냐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단자라는 혐의를 받게 됐고 투옥되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에게 와서 그의 불행에 대하여 동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 이냐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이라니요. 형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형제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묶이고자 하는 만큼의 많은 쇠사슬과 족쇄가 이 살라만카에 없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 받기를 기뻐할 때만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기에 그 무엇보다 소망스럽지 않겠습니까?

- 폴 J. 와튼 -

♣ 말씀읽기 2

디모데전서 3장 14~16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의 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 묵상하기 2

‘말씀이 교회로 인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말씀으로 인해 세워진 것입니까?’

나눔시다

- 세상에서는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당신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들”

탈북한 한 형제가 선교사들에게 신앙을 훈련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수차에 오고 가며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까지 받아왔던 공산주의 교육이나 주체사상에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들은 무서울 만치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어갔습니다.

먼저 훈련받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회령보위부 감방에 수감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김○○ 청년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회령 보위부 감방에서는 낮에는 앉은 자세에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는 45도로 굽혀서 부동자세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김○○ 청년은 이런 자세로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가 일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쪽 벽에 누가 언제 썼는지는 몰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글씨가 손톱으로 쓴 듯 희미하게 보이는데 거기서 소망을 얻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회령 보위부에서는 기독교인을 몽땅 잡아서 총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 남매간인 13세 된 소녀와 8세 된 남자 아이 역시 예수쟁이라고 붙잡혀 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측은해 보였던지 보위부 간부는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 어서 말하라”고 다그쳐도 끝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 옆에 있던 보위부원은 동생이 보는 앞에서 소녀를 솔하게 때리고 입을 찢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남자동생은 “우리 누나 때리지 말기쇼. 예수님은 꼭 믿어야만 합네다.”라고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보위부 간부는 “악질 반동 예수쟁이 새끼들 데려다가 총살시키라.”고 명령하였고 두 남매는 처형장으로 개처럼 끌려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북녘 땅의 지체들은 남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리의 기초가 되심을 알았기에 그 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포도나무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낼 수 있습니다.

< 우리 순원 기도제목 >
